



## 우리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양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우승팀

2020년 11월 21일, ‘청소년 존중, 청소년 행복,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고양시’라는 주제로 고양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4회째로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팀을 이뤄 참가하는 대회다. 백석중학교 학생 5명으로 구성된 ‘GO UP’팀과 안곡저원고등학교 학생 4명으로 구성된 ‘고양금융이들’팀은 각각 ‘고양 청소년 네트워크 제작’, ‘청소년 경제교육 활성화’라는 주제로 우승을 차지했다.

글 공주영, 박다연 사진 조병우

### 중등부 우승팀 ‘GO UP’

정책제안 주제 고양 청소년 네트워크 제작



(좌측부터) 신민석·이채원·천예지·조은솔·김보현 학생

#### Q —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천예지** 채원아와 저는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 수련관에 방문했다가 정책제안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섯 명의 친구가 모였어요. 저희는 백석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반은 다르지만, 가끔 모여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편이에요. 꿈을 향해 각자 하는 활동들이 있지만 이런 정책 제안을 같이하면 추억도 되고 유익할 것 같았어요.

#### Q —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정책제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천예지**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고양시 청소년들이 함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는 ‘청소년 청원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 정보 게시판’, ‘고양 청소년 채팅방’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 프로그램은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로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말하겠다는 것이고, 정보 게시판은 청소년수련관이나 꿈의 학교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활동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채팅방은 익명으로 또래의 청소년들이 고민을 나누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 Q —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신민석** 어른들의 시각에서 제안된 정책 때문에 청소년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버스비 환급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버스비 가격 인하로 환급제도를 실행했지만, 환급을 받는 절차가 복잡해서 결국 놓치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이런 불편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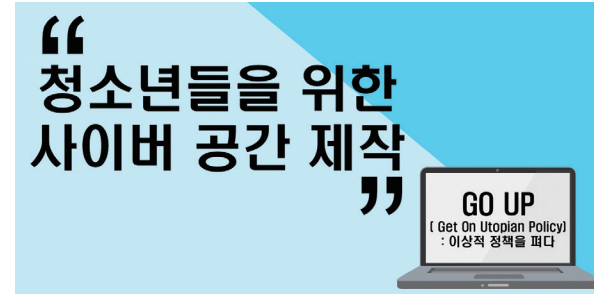
**이채원** 민석이가 말한 의견을 듣고,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불편함을 야기했을 때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을 전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청원 프로그램을 제안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조은솔** 주변을 보면 재능이나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정보를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 정책제안대회도 그렇고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활동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다면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단합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보현** 저는 친구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다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 Q — 코로나19 속에서 대회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천예지** 대면 회의가 힘들어서 주로 저녁에 각자 집에서 화상으로 만나 회의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질 때도 많았지만, 열정과 재치가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라서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중등부 우승팀 발표 자료

**김보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두 달 정도 미뤄졌는데 당시에는 아쉬웠지만, 그 시간만큼 오히려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이디어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Q — 우승 소식을 듣고 각자 느낀 소감도 한마디씩 해볼까요?

**조은솔** 각자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것을 통합적인 아이디어로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더 돈독해졌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서 뿌듯했어요.

**신민석** 청소년이 하는 정책 제안이라는 자체가 흥미로운 일이지만, 대회를 통해 다른 팀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어요.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니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Q — 이번 대회 참여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조은솔** 저희가 낸 정책이 정말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실행되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참여도가 낮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등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채원** 지금까지는 나라나 시의 정책은 우리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인 저희도 정책에 대해 능동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